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세계에 알린다

해외언론 초청 현지설명회 추진 정부 인사 순방 등 홍보도 강화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해외 언론에 대한 홍보가 본격화된다. 또 여수 박람회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홍보활동도 본격화했다.

전남도는 15일 “중앙유치위원회, 여수시와 공동으로 주한 외신기자와 국제기자를 여수로 초청, 현지 설명회를 갖고 여수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적극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국 로이터, 미국 뉴스위크, CNN, UPI,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 등의 주한 외신기자 20여명이 16일부터 17일까지, 우간다 언론인협회장인 ‘Michael Andrew Wakabi’ 등 국제기자 11명이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여수를 각각 방문한다.

이번 행사는 여수가 2012 세계박람회 경쟁 도시인 모로코 탕헤르나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비해 ‘도시 브랜드(City Brand)’가 다소 약하다고 판단해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포스코(POSCO) 광양제철소를 견학하고 여수박람회 개최계획 등을 청취한 뒤 관련 SOC 사업 현장, 남해안 일대 등을 헬기로 시찰하고 순천 낙안읍성 등 관광 여건을 둘러볼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주제의 타당성, 우리나라 박람회 개최 계획 및 준비 상황, 여수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의 박람회 유치 열기 등을 해외에 널리 알릴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외신기자와 국제기자 초청을 통해 여수 세계박람회 준비 상황이 국제 언론에 크게 소개될 경우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국제적인 인지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이 오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해 동유럽 순방에 나섰다. 정 차관은 13일부터 이를 간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 기안 최리실 총리실 차관, 거르헤지 아벨 경제교통부 차관, 관츠 킵기 외무장관을 잇따라 만나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에서 여수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권오룡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도 2012년 여수 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17~23일 태국과 스리랑카를 방문한다고 외교통상부가 15일 밝혔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3·16 광주 경선 5년 노사모 호남 대표일꾼 주국전씨 소회

16일은 지난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국민경선에 나섰던 노무현 후보가 ‘광주 경선’에서 예상치를 뛰어넘어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킨 날이다. 당시 지지율 10%에 머물던 노 후보는 광주에서부터 시작된 ‘노풍(盧風)’과 후보 단일화를 밀거름으로 40%를 넘나들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격침시키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영남 출신인 노 후보를 선정한 광주 시민들의 선택은 ‘무혈시민혁명’ ‘광주대첩’으로 불렸고 지역주의 청산과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광주 경선의 한 복판에는 사상 최초의 자발적인 정치인 펜클럽인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가 있었다. 회원들은 국민 경선 과정에서 밤을 새워 손으로 편지를 쓰거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총동원한 노무현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그로부터 꼭 5년 후인 지금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다시 10%대로 추락했다. ‘노풍’(친노세력)이 노 대통령을 지지하는 별칭의 부침을 지켜보는 ‘노빠’(열성적인 노 대통령 지지세력을 가리키는 인터넷 은어)들의 심정은 어떨까.



“권위주의 타파 성과 불구 386 전횡이 실패 자초”

3·16 광주 경선 당시 노사모 호남 대표일꾼으로 활동했던 주국전(48·광주문성중 교사)씨. 그는 지금도 영주체육관에서 치러진 경선 장면을 회상할 때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1위를 차지한 노무현 후보를 비롯 영남 출신 두 후보에게 호남 출신 보다 배가 많은 표를 던진 광주 시민들의 선택은 지역감정에 의한 분열주의를 거부하고 용서와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달라는 요구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때 가장 열성적인 ‘노빠’였던 그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에 대해선 “너무 안타깝다”고 소회를 털어냈다. “관중된 인사의 시정, 지역균형발전, 행정수도 이전 등의 적극 추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마음에 닿지 못했다. 언론의 평가도 가혹했지만, 지역간·계층간 갈등 해소에도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진단했다.

주씨는 노 대통령의 성과로는 권위주의 타파와 3권 분립의 정착을 가장 먼저 꼽았다. 논란을 빚고 있는 한·미 FTA와 파병 등에 대해서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거부할 수 없는 입장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참여정부의 정책실패를 ‘청와대 386세대의 아마추어리즘’ 탓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원칙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들이 운영의 묘를 발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화법(話法)에 대해서도 “후보 시절엔 쉽고 편안해 사람을 끌어들이는 느낌을 가졌으나 지금은 엄청난 단점이 되어버렸다. 용어 선택도 문제”라며 “한나라당에 대한 대연정 제안만해도 자신은 호남을 저버리고 영남을 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서 도와달라는 제스처였으나 방법이 너무 정치적이어서 본래 취지는 실종되어버리고 결국 손놓고 말았다”고 분석했다.

노사모, 당선 직후 해체했어야

그는 “노사모”의 활동과 관련 “대선 직후 ‘역사적 역할’을 다했으나 이전 불꽃처럼 사라져야 한다”며 해체를 제안했으나 표결에서 부결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노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노사모의 존재는 서로에게 부담만 준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이같은 신념에 따라 2003년 6월부터는 활동을 중단했다.

음악 교사인 주씨는 노사모 활동 직전인 2001년 1월 1일부터 열흘간 아들·딸 및 제자 4명과 함께 ‘동서화합’을 기원하며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부산 민주공원까지 320km의 대장정에 나서기도 했을 만큼 국민화합에 대한 열망이 크다.

그는 “노사모 초기 멤버로 중추적 역할을 한 데 대해 지금도 후회는 없다. 노 대통령을 선정한 것도 자랑스럽다”며 “하지만 노 대통령이 국민 모두가 마음을 여는 열린 세상을 만들는데 실패한 만큼 퇴임 후에는 그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애정을 감추지 않았다.

/*정호식기자 who@kwangju.co.kr
/*사진=니름주기자 mjna@kwangju.co.kr

외국대학·지자체 연계 특성화 고교 1호 탄생 광양에 네덜란드 STC 분교 9월 개교

외국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산업체가 교육 과정 등에 참여해 전문인력 양성과 대학 진학, 취업 등을 지원하는 형태의 특성화고등학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탄생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광양의 한국항만물류고교가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STC·Shipping and Transport College)과 전문교육기관의 첨단 실습실 공유와 학생 및 교사 연수 지원, 특례입학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STC는 올해 9월 광양시에 분교(STC-K)를 설립해 장·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내년 3월에는 대학원(석사) 과정을 개설하며 2010년에는 학부과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항만물류고 학생들은 STC가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항만 구조와 시스템에 맞춰 60년 동안 개발해 축적해온 250억달러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특수선 항해나 곡물 검사, 부두 운영, 크레인 조종, 컨테이너 고장 등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된다.

정영기 한국항만물류고 교장과 STC재단의 에릭 히트 브링크 이사장은 양해각서 내용과 별도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해 학생들과 교사들이 네덜란드의 STC 분교에서 연수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성용 광양시장은 오는 23일 전남교육연수원에서 열리는 ‘전남교육청 직업교육 연찬회’에 참석해 지역산업체와 공동으로 한국항만물류고 졸업생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광양=김훈호기자 chkim@kwangju.co.kr

뉴욕 방문 오현섭 여수시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면담 “박람회 유치 힘 써주세요”

여수시는 15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12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다 시한반 강조했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오현섭 여수시장과 14일(현지시간) 가진 오찬에서 이같이 밝히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할 만큼 외교 역량을 가진 한국이 반드시 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며 한국에 가면 여수를 찾아 유치 노력에 애쓰는 시민들을 격려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반 총장에게 여수시의 상징인 동백꽃과 세계박람회 문구가 적힌 합죽선을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반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 취임을 전후해 오 시장에게 두차례에 걸쳐 박람회 유치 지지를 보내 바랐다.

한편 오 시장은 반 총장과와의 환담이 끝난 뒤 그리스 올림피아시 아이도니스 게오르규 시장과 두 도시간 자매결연 했으며 게오르규 시장은 여수시의 2012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적극적인 지원 약속과 함께 올 상반기 오 시장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오 시장은 14일 저녁 뉴욕대 킬빌센터에서 열린 폴브라이트 장학재단 60주년 기념식에 참석, 존 브라데마스 뉴욕대 총장, 피터 티간스키 미국 국제우호협회장 등 주요 저명인사들과 환담을 나누며 2012세계박람회 여



2012세계박람회 홍보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오현섭 전남 여수시장(14일(현지시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여수시 제공>

수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20여명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았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kwangju.co.kr

입동 총 914세대중 2차 574세대 단지내 상가 분양!!

914세대 독점상권만으로 프리미엄이 된다!

한국 아빌리움

입동 2차 단지내 상가분양

- 입동 2차 한국아빌리움 단지내상가 성공투자모험
- 2007년 7월 입주식 동시 집행
- 914세대내의 모토전 주상복합구 역세
- 중복입종 제한으로 독점상권 보장
- 스페셜이 같은 30.40형식의 아파트로 구성
- 임대40% 신남 내세가름

입동 2차 한국아빌리움 단지내상가 성공투자모험

문의: 062) 512-2788